저는 윤봉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아버지 윤황과 어머니 김원상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윤봉길이 한 업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과 안내를 받아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동생인 윤성의와 함께 한학을 공부하였고

농민계몽을 위해 교재를 집필하여 야학회를 조직하였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습니다.

부흥원 주관으로 학예회를 엶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만주로 떠남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하여, 평안도 선천에서 체포되어 45일간의 옥고를 치름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야 성공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하이를 향해 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인 김구를 찾아가 그의 뜻을 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함

일본은 1932년 자작극인 일본 승려 살해사건을 이유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킴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김구를 비롯한 이동녕, 이시영, 조소앙 등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거사를 구상함

윤봉길은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됨

그해 12월 19일 총살형을 받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함

이 사건은 중국 등 세계에 알려짐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음